

빈대 확산 방지 정부합동대응회의 개최

- (11.6~12) 지자체 신고 155건 / 발생 41건, 민간업체 방제 포함시 전체 발생 56건
- ‘빈대 집중 점검 및 방제 기간’ 운영(11.13~12.8)을 통해, 전국 빈대 취약시설 약 11만여개소 대상, 선제적으로 전수점검 예정
- ▲살충제 긴급승인 ▲특별교부세 지원(22억) ▲검역단계 구제작업 등 현장방역 강화

- 박구연 국무1차장은 11월 14일(화)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빈대 확산 방지 정부합동대응회의’를 개최하여 지난 회의(11.7) 후 1주간의 ‘빈대 발생 현황’ 및 중앙·지자체 대응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책방향을 논의하였다.

< 빈대 확산 방지 정부합동대응회의 개요 >

- ▶ (일시·장소) '23.11.14(화) 15:00 ~ 16:00, 정부서울청사 회의실
- ▶ (참석기관) 질병청, 행안부, 복지부, 환경부, 교육부, 법무부, 국방부, 문체부, 고용부, 국토부, 권익위 및 17개 시도

- 빈대 신고 및 발생 현황은, 지난주(11.6~11.12)에 지자체 등 정부에 155건의 신고(전주 대비 +123건)가 접수되었으며, 이 중 실제 빈대가 발생한 건은 41건(전주 대비 +28건)으로, 민간업체 직접 신고건*(15건) 포함시 전체 56건이다. 국민들께서 우려가 많으셨던 지하철, KTX 등 대중교통시설에서는 발생 사례가 확인되지 않았다.

* 민간 대표 방제업체 조사 결과(연간 빈대 방제작업 건수 90% 차지)

- 전문방역업체 등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이후 해외여행 증가에 따라 빈대 발생이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최근 높아진 사회적 관심도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고 건수가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정부는 실제 빈대 발생이 신고된 사례에 대해 즉시 방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 정부합동대응회의(매주)시마다 빈대 신고·발생건수를 지속 공개하는 등 국민들께 관련 정보를 제공해드릴 예정이다.

- 또한, 정부와 지자체는 어제부터 4주간의 ‘빈대 집중 점검 및 방제 기간 (11.13~12.8)’을 시작하였다. 숙박시설, 기숙사 등 전국 빈대 취약시설 총 11만여개소에 대해 각 지자체와 소관 중앙부처에서 집중 점검을 실시, 발견 즉시 신속한 방제 작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 이번 4주간의 집중 점검·방제기간을 통해, 빈대 발생 우려시설을 중심으로 빈대 확산을 철저히 차단하고, 각 시설관리자들이 빈대 발생예방에 각별히 관심을 기울이도록 할 계획이다.
- 특히, 국조실 주관 정부합동대응본부 구성(11.7)에 이어, 17개 시·도별 빈대대응체계도 구축하도록 하였으며, 특별교부세 22억을 지자체에 지원(11.13)하여 취약계층 방제 지원에 활용토록 함으로써 집중 방제 기간 동안의 현장 방역 역량을 강화했다.
- 한편, 정부는 내성이 덜한 살충제를 적기에 현장에 투입할 수 있도록, 이번 점검·방제 기간에 맞춰 방역업체용 네오니코티노이드 계열 살충제 (8개 제품)를 긴급승인(11.10)하여, 이 중 원료를 기확보한 4개 제품은 즉시 생산 가능토록 하였다.
- 가정용 살충제의 경우, 일반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사용하여 노출 가능성이 높아, 보다 더 엄격한 안전성 검증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을 수용하여, 즉시 후속 승인 절차에 돌입하였으며, 최대한 소요기간을 단축 (통상 60일 → 약 2주)하여 변경승인을 추진하기로 했다.
- 또한 빈대는 해외에서 소지품 등을 통해 유입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인천 공항 입국자 수하물 대상으로 원하는 사람에 한해 열풍기를 활용한 구제 서비스(스팀 고열 분사) 사업을 우선 추진하기로 하고, 내년에는 13개 공항만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기로 하였다.

담당 부서 <총괄>	국무조정실	책임자	과장 성현국 (044-200-2293)
	사회복지정책관실	담당자	사무관 이혜빈 (044-200-2289)
	질병관리청	책임자	과장 여상구 (043-719-9050)
	위기대응총괄과	담당자	사무관 김재홍 (043-719-9373)
<공동>	행정안전부	책임자	과장 엄현숙 (044-205-6150)
	보건의료재난대응과	담당자	사무관 최기수 (044-205-6157)
	환경부	책임자	과장 권병철 (044-201-6805)
	화학제품관리과	담당자	서기관 기대정 (044-201-6828)

참고

빈대 발생현황

* 11.6~11.12 수치

시도명		총 누적 (C=A+B)	전주 누적 (A)	금주* 신규 (B)	발생 시설 (개소)									
					숙박	목욕탕 찜질방	학교 · 가숙사	가정집	외국인 · 가숙사	고시원	쪽방촌	문화 체육	교통	기타
총 계	신고	187	32	155	4	6	6	79	7	30	1	1	2	19
	발생	54	13	41	1	1	1	19	0	15	0	0	0	4
서울	신고	89	14	75	2	2	3	33	0	24	1	0	0	10
	발생	39	11	28	1	0	0	10	0	14	0	0	0	3
경기	신고	66	13	53	0	2	2	30	7	5	0	1	1	5
	발생	5	0	5	0	0	0	4	0	1	0	0	0	0
대구	신고	3	1	2	0	0	0	1	0	0	0	0	0	1
	발생	3	1	2	0	0	0	1	0	0	0	0	0	1
충남	신고	4	0	4	0	1	0	3	0	0	0	0	0	0
	발생	3	0	3	0	1	0	2	0	0	0	0	0	0
인천	신고	6	1	5	1	1	1	1	0	1	0	0	0	0
	발생	2	1	1	0	0	1	0	0	0	0	0	0	0
대전	신고	4	0	4	0	0	0	4	0	0	0	0	0	0
	발생	2	0	2	0	0	0	2	0	0	0	0	0	0
부산	신고	3	3	0	0	0	0	0	0	0	0	0	0	0
	발생	0	0	0	0	0	0	0	0	0	0	0	0	0
충북	신고	2	0	2	0	0	0	0	0	0	0	0	1	1
	발생	0	0	0	0	0	0	0	0	0	0	0	0	0
경남	신고	10	0	10	1	0	0	7	0	0	0	0	0	2
	발생	0	0	0	0	0	0	0	0	0	0	0	0	0